

2008년 7월 29일 말씀

잘 안 나오는 애들 신앙이 없어서 안 나오는 것이 아니니까 찾아가서 만나보고. 애들이 뛰다가 쉬고 싶어서 피곤해서 안 나오는 것이니, 안 나온다고 해서 "재 신앙 죽었다." 하지 마십시오. 섭리 나간 것이 아닙니다.

부서에서 관리되지 않는 애들은 다른 방법으로 목사님들이나 지도자들 배치해서 만나보고 종적, 횡적으로 그물같이 관리해야 됩니다. 영적 육적으로 관리하듯이.

특별 관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각 교회 교역자들이 못해주는 것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 저기 재미있게 돌아다니면서 관리하십시오.

앞으로 해외에서 많이 올 것입니다. 내가 한국에 있어서 오라고 하니 해외에서 오는 것입니다. 이번 8월 행사 때도 비행기 5대정도 올 것입니다. 앞으로는 50대 정도 해외 사람이 한국으로 올 것입니다.

전라남도에 예술단 있습니까? 여수, 진해, 목포, 해남. 완도완도에 내가 간지 15년 됐습니다. 지역(완도) 순회 가서 중고등부 만나서 관리해주고 거기 지역 관광도 하고 그렇게 하십시오.

캠퍼스 방학했습니까? 캠퍼스는 지금 캠퍼스에 다니는 사람들이 함께 들어가서 관리하면서 뛰어야 합니다-474. 졸업한 사람들은 자기가 겪고 지나왔어도 애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감이 없습니다.

섭리에 컴퓨터 다루는 사람들도 많이 필요합니다. 섭리 안에 일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오래된 사람들이 자리도 비켜주고 자기는 다른 것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 자리 떠나면 큰일 나는 줄로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촬영하는 사람들은 이번 8월 달에 행사도 많고 하니까 기록을 잘 남겨야 합니다. 사진부도 한 번 잘 찍어보라고 했습니다. 장비가 문제가 아니고 기술이 문제입니다. 선생님도 펜이랑 종이 없어도 머리로 기억해서 책 썼습니다. 사람이 하고자 마음먹고 하다보면 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오는 것입니다.

월남전 글 쓴 것 책 나왔습니다.